

꿈을 향한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

제3회 다도 청소년 실용음악캠프... 오늘부터 3일간 남평중 다도분교



지난해 열린 제2회 다도청소년실용음악캠프

남주시 다도면 남평중학교 다도분교에서 3번째 다도 청소년 실용음악캠프가 개최된다. 8일부터 3일간 '밴드... 댄스 그리고 이야기'를 주제로 광주·전남지역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 밴드와 댄스 동아리팀, 실용음악 및 실용댄스에 관심 있는 초보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 축제로 진행된다. '잘 노는 학생, 공부도 잘 하는 학생'을 지향하는 남평중학교 다도분교(교장 변정빈)의 다도 청소년 실용음악캠프 역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2015년 9월 변 교장이 남평중에 부임했을 당시 학생수는 1학년 없는 총 8명이었다. 2016년 2월, 3학년 5명이 줄

업하자 2학년 3명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에서 폐교나 부활이냐를 놓고 학교 관계자와 동문, 지역민 등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폐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됐다. 실용음악을 특화한 열린예술학교 프로그램의 기반으로 살아남기 위한 다도분교의 마지막 몸부림의 하나가 그 해 8월 제1회 다도 청소년 실용음악캠프였다. 다도중 동동문화장과 지역발전협의회·부녀회 등 지역민이 흔쾌히 나서서 운연 예산 일체를 모금·후원해 줬고, 제1회 캠프 이후 학생이 전무하던 2학년에도 광주와 완도에서 2명의 학생이 전학오면서부터 다도의 작은 기적은 시

작됐다. 2017년에는 학생수가 17명으로 늘어났으며, 전남도교육감과 남주시장의 지원에 힘입어 밴드·댄스 관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복식학급을 해제하고 교사 8명과 교감 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변 교장은 "2016년에 전학 왔던 학생이 서울 모 기획사에서 주관하는 가수 오디션에 합격하는 기쁨도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전남예술고 피아노과에 합격하기도 했다"고 기뻐했다. 올 7월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시 등에서 전학생이 찾아와 이제는 26명(1학년 8명, 2학년 8명, 3학년 10명)의 학생과 교감 등 교직원 11명이

동지를 틀게 됐다. 올해 제3회 음악캠프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나주교육지원청 서춘기 교육장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초·중·고생 및 대학생, 학부모, 지역민 등 164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다. 이번 캠프는 인디밴드 바투가 3일 동안 함께 하고 특히 전남예술고등학교의 후원으로 캠프 기간 내내 수시로 버스킹 및 멘토링, 진로상담 등이 이루어져 참여 학생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 마지막 날은 오후 4시부터 실용음악·실용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저녁 7시에는 캠프 참가 학생의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동문 및 지역민, 기관·사회단체장 등을 초청해 강강서트가 펼쳐진다. 아울러 참가학생들의 사기 진작과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체공연 우수 팀과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교육장상, 나주시장상 등이 주어진다. 변정빈 교장은 "캠프를 통해 다도분교의 특화된 열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음악-댄스-연극 등을 공부하기 위해 '찾아오는 다도, 전학 오는 학교'를 만들어 명실공히 명품 다도중학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연수 기자



정성복 작 '바람의 언덕'

작가 74인 사랑나눔전

진한미술관서 8월 한달간

진한미술관에서는 8월 한달간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펼치는 작가에게 온정을 나누는 '사랑과 나눔전'을 열고 있다. 전시회 초대된 작가는 총 74인으로, 강남구, 고영주, 고희주, 고희자, 구만채, 박태후, 위재환, 정선, 정성복, 하철경, 한갑수, 황영성 등 끊임없이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한국화 8점, 서양화 48점, 조각 18점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 판매수익금 전액은 전시가 끝난 후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참여 작가들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문의 062-222-0072 /이연수 기자

머리카락을 예술작품으로

미용명장 1호 김진숙 개인전 14일까지 G&J광주·전남갤러리

미용으로 활용됐던 머리카락을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킨 작품 전시회가 마련됐다.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모아 탈색하고 수백 가지 다양한 색으로 염색해 꽃도 만들고 가루를 만들어 회화적인 작품들로 구성된 작품들이다. 대한민국 미용명장 제1호 김진숙 개인전이 8일부터 14일까지 G&J광주·전남갤러리에서 선보인다. 그동안 실험적 과정을 거친 결과물들 30여점을 전시한다. 김진숙 작가는 미용경력 45년의 대한민국 미용 명장 제1호로 현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실용적인 아름다움인 미용이 예술로서의 승화가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머리카락에 생명력을 부여해 머리카락으로 꽃을 만들고, 머리카락과 회화를 접목하기에 이르렀다. 머리카락이라는 본질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도록 화폭을 짙게 채운 작품들은



'그대에게'

회화와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작품으로 탄생했다. 작가는 무한한 창의력과 자유 그리고 예술적 상상력을 머리카락이라는 소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시 개막식은 8일 오후 5시. /이연수 기자

'아트광주18' 갤러리·개인작가 접수

국내갤러리 20일... 해외갤러리·작가 31일까지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8'이 국내외 갤러리와 개인작가를 아트광주18 홈페이지(http://artgwangju.org)를 통해 모집 중이다. 국내 갤러리는 오는 20일까지, 개인작가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해외 갤러리는 31일까지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및 참가규정은 아트광주18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갤러리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참가결정된 개인작가는 9월 7일을 전후로 이메일, 유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아트광주18'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2, 3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아트광주18은 주제로 선불로 잡고 '귀한 사람에게 귀한 작품을...'이라는 콘셉트로 페어를 준비하고 있다. 문의 062-223-1532-4. /이연수 기자

월북 무용수 최승희 춤사위

남도국악원, 10일 최신아 예술단 초청 공연

북한의 춤사위를 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남도국악원은 10일 오후 7시 진악당에서 전 환경북도 예술단 무용 감독 출신 최신아 단장이 이끄는 '최신아 예술단' 초청 공연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 보여줄 북한 춤은 북한 무용계에 조선 춤을 체계화하고 무용극 창작에 힘쓰는 등 북한 무용계를 선도한 최승희의 춤사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승희의 작품은 민족주의, 국제주의적 작품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최승희의 춤을 이어받은 흥정화와 흥정화의 춤사위를 전수한 최신아가 표현하는 이번 작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보일지 자못 기대된다. 이번 공연 '남·북의 울림'은 '장고독무', '삼색부채춤', '축원무', '그리운 강남', '장고 5인무', '진도북춤', '임진강', '계절무용' 총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요국악공감은 무료다.

최승희의 작품은 민족주의, 국제주의적 작품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최승희의 춤을 이어받은 흥정화와 흥정화의 춤사위를 전수한 최신아가 표현하는 이번 작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보일지 자못 기대된다. 이번 공연 '남·북의 울림'은 '장고독무', '삼색부채춤', '축원무', '그리운 강남', '장고 5인무', '진도북춤', '임진강', '계절무용' 총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요국악공감은 무료다.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메티오닌
- 두뇌 구성물질 오메가3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엔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자, 셀레늄(Se)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정, 올리고당

